

“높은 순위로 프로 입단…그게 효도하는 길”

■ 2019 고교야구 ‘최대어’ 예약 장충고 김 병 휘 군

2017년 결혼한 100쌍 중 8쌍 이상이 다문화 가정이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전체 신생아의 5%를 넘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비율은 점차 늘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다문화 가정은 낯설음의 단계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는 비율상의 이야기일 뿐, 현실은 다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편견을 완전히 견어내지 못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차별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잦다. 서울 장충고 야구부 내야수로 프로 입단의 꿈을 키우고 있는 김병휘(17) 역시 마찬가지다. 브라질 국적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지만, 편견의 시선을 감내하고 있다.

● 조금 일찍 철이 들다

그가 한 살 때 부모님이 이혼 절차를 밟았다. 자연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전무하다. 어머니가 남긴 흔적은 큰 눈과 또렷한 콧날 등 다소 이국적인 외모뿐이다. 그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의도치 않았던, 이러한 외모를 두고 한두 마디를 던진다. 김병휘에게는 고스란히 상처로 다가왔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게 됐고 낯가림이 심해진 이유다. 28일 장충고 운동장에서 만난 그의 말이다.

“차라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그런 말에 가타부타 대꾸라도 할 텐데, 내가 모르니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칭찬을 위해 건네는 말이라라도, 내게는 속 깊은 곳의 이야기다. 상처가 될 때도 있다. 지금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게 눈을 피하게 된다.”

하지만 그라운드 위에서는 낯가림이 없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장충고 송민수 감독에게 김병휘를 평가해달라고 부탁했다. 송 감독은 “솔선수범, 이 네 글자면 충분할 것 같다”며 미소 지었다. 김병휘는

2학년인 2018년에도 주전으로 전 경기를 소화했다. 보통 2학년들은 입시나 프로 입단이 걸린 시기가 아닌 탓에 잔부상을 당하면 한두 경기쯤 빠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데, 김병휘는 그렇지 않았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나. 내가 지도한 모든 선수들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김)병휘는 조금 특별하다. 자세한 내막을 전해 듣기 전까지는 아픈 가정사가 있는지 조차 몰랐다. 그만큼 티를 안 내고, 늘 훈련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친구다. 2019년 주장을 맡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송 감독의 이야기다.

한 살 때 부모님 이혼…엄마 기억 없어 외모에 대한 말…칭찬이라 해도 상처 그레도 가족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라 프로 돼 그간 고생하신 것 값아드려야

김병휘의 목표 역시 야구선수로 성공하는 것이다. 본인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간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가족들의 은혜를 되갚기 위해서다. 김병휘의 가족들은 의료 사업을 가업으로 삼는다. 의상 패턴 관련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비롯해 삼촌과 할머니 모두 관련 업종에 종사한다. 할머니는 김병휘의 밤이나 땀을 해주는 것은 물론 집에 있는 재봉틀로 그의 유니폼을 직접 수선해주곤 했다.

힘들게 번 돈이지만 아들을 향해 쓰는 것은 주저하지 않았다. ‘부모님께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말해도 모두 얻을 수는 없다’는 간단한 사실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는다. 김병휘는 “야구를 시작했을 때는 물론이고 필요한 물건을 사달라고 했을 때,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모두 선뜻 허락하셨다.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알았다. 이제야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고, 최대한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아울러 “지금까지 야구만 해온 내가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프로에 높은 순위로

입단해 계약금을 받고, 꾸준히 활약해 고액 연봉을 받는다면 그간 고생하신 것을 갚아드릴 수 있다”고 의젓하게 말했다.

● 왕도 밝아온 김병휘, 프로를 꿈꾼다

그의 높은 순위 프로 입단이 마냥 허황된 꿈은 아니다. 송민수 감독은 장충고 지휘봉을 잡은 뒤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다. ‘썸’이 보이는 1학년은 주전 1루수로 기용한 뒤 2학년 때 2루수, 3학년 때 유격수로 포지션 변경을 시키는 방식이다. 송성문(백산 하이로즈), 박찬호(KIA 타이거즈) 등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프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금 더 원숙한 고학년들을 주전으로 쓰면서 상대적으로 기여도나 주목도가 떨어지는 1루수를 저학년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이들의 수비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김병휘 역시 이러한 ‘왕도’를 밟으며 성장했다. 내야 수비만큼은 지금 당장 프로에 가도 통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충고가 내야수 김병휘와 외야수 박주홍으로 2019년 최대어 두 명을 배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병휘는 “딱히 응원하는 팀도, 롤 모델도 없다. 하지만 수비를 잘하는 유격수의 영상이라면 가리지 않고 찾아본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유격수를 맡았다. 수비에 대한 자부심도 있다. 야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번으로 지명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프로필상 신장은 178cm, 체중은 80kg로 한 시즌을 치르기에 다소 호리호리한 체격이다. 김병휘 역시 이를 느꼈다. 예년에 비해 장타력이 감소한 것을 체감했다. 장충고는 내년 1월말 필리핀으로 한 달 가까이 전지훈련을 떠난다. 그 전에 근육량만 5kg 늘리겠다는 각오다.

“감사하게도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 같다. 가족들은 물론 함께 야구를 한 동료들, 감독님들 모두 그랬다. 2019년은 이 멤버로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다. 장충고 소속으로 좋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승이 필수다. 이 목표만 신경 쓰겠다.” 그의 다짐이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장충고 내야수 김병휘는 브라질 국적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한 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다. 마음속 상처를 야구로 달래던 그는 어느덧 프로에서도 주목하는 유망주가 됐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2018년 로드FC의 마지막 대회가 12월 15일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열린다. 여성부리그인 'XIAOMI 로드FC 051 XX'의 공식 포스터. 사진제공 | 로드FC

2018년 마지막 대회 최후의 승자는 누구?

로드FC 051 대회 대진 최종 확정

2018년 로드FC의 마지막 대회 대진과 포스터가 최종 확정됐다.

로드FC는 12월 15일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올해 마지막 대회를 개최한다. 남성 파이터들의 경기로 대진이 꾸려진 XIAOMI 로드FC 051이 먼저 열리고 이후 여성 부리그인 XIAOMI 로드FC 051 XX가 연이어 진행된다.

연말 대회의 메인 이벤트로 '세계 랭킹 1위' 로드FC 아툼급 챔피언 함서희(30·팀 매드)와 박정은(22·팀 스트롱울프)의 대결이 결정됐다.

이 경기에 로드FC 신기록도 걸려있다. 함서희가 승리하면 로드FC 여성 파이터 최초로 2차 방어에 성공하고, 박정은이 승리하면 로드 FC 역대 최연소 챔피언에 오른다.

함서희와 박정은의 대결 외에도 흥미로운 경기가 많다.

데뷔 전부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던 이수연(24·로드잡 강남MMA)과 이예지(19·팀제이)가 대결하고, '무에타이 국가대표' 출신의 심유리(24·팀 지니어스)와 '의대생 파이터' 스밍(24·CHINA CATCH WRESTLING TEAM)의 경기도 준비돼 있다.

요시코를 이기며 화제가 된 김영지(25·팀 제이)와 '태권 파이터' 김해인(26·씨비MMA), 홍윤하(29·송탄MMA 멀티집)와 백현주(20·광주승리집)의 경기도 예정되어 있다.

대회가 모두 종료된 뒤에는 시상식과 함께 송년의 밤 행사가 열린다. 시상식으로 1년 동안 활약한 파이터들과 지도자들에게 상을 전달하고, 송년의 밤 행사에서는 파이터와 지도자, 팬들이 모두 모여 추억을 만들 예정이다.

장승성 기자 award@donga.com



가사 창작과정을 통해 창의성을 높이는 '애기뽕풀'의 '나 여기 있어요' 프로젝트. 전통악기와 서양악기를 활용해 어린이 치어리딩을 진행한 '흥나게 깔깔'의 '흥나게 치어리딩' 프로젝트. 어린이들의 관심사, 고민, 꿈을 주제로 단막극 형식의 공연을 선보인 '깔깔깔 놀이터'의 '우리네 프로젝트', 연극, 음악을 합쳐 지역의 이야기를 만든 '화성F4'의 공연 모습(왼쪽부터).



‘깔깔깔’ 웃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애기뽕풀’ 아동 창의성 계발 앞장
‘흥나게 깔깔’ 치어리딩 이색 장르
‘깔깔깔 놀이터’ 단막극 공연 눈길

지역문화활동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인 ‘깔깔깔’의 참여팀들을 만나는 시간이다. ‘깔깔깔’은 코리아문화수도 조직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야심찬 기획이다. 국내 지역문화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전 국민이 ‘깔깔깔’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2기 ‘깔깔깔’ 29팀을 선정해 지

원하고 있다. 전국 27개 지역, 22개 분야를 망라한 실력과 팀들이다.

남양주예술단은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미술, 음악이 복합된 동화공연으로 무대를 꾸미는 ‘우리동네 전래동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동화들이 소재이다. ‘은혜깊은 호랑이’는 6막, ‘도깨비감투’는 총 5막으로 구성됐다. 어린이들의 관심과 재능에 맞춰 미술파트, 음악양상블 파트, 동화 구연파트로 나누어 팀원들의 지도를 받아 공연을 준비한다.

‘애기뽕풀’의 프로젝트명은 ‘나 여기 있어요’. 하나의 키워드를 정한 뒤 가지를 키워나가는 가사 창작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 포인트다. 성미

산 마을합창단 단장이 사업대표를 맡아 어린이들과 10여 년 동안 다수의 공연을 했으며, 음반제작 경험도 갖고 있다. 아이들이 가사를 만들면 전문작곡가들이 노래를 작곡한 뒤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편곡한다.

치어리딩이란 흥미로운 장르를 채택한 ‘흥나게 치어리딩!’은 ‘흥나게 깔깔’의 프로젝트다. 전통악기와 서양악기를 활용해 어린이 치어리딩을 진행한다.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캐스터네츠와 소고로 주요 악기로 쓰인다.

‘화성F4’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합해 깔깔깔 페스티벌을 연다. 연극, 음악을 합쳐 지역의 이야기를 만든다. 수줍음이 많은 어린이의 경우 그림을 그려 직접 발표하게 하는 것도 흥미롭다.

‘T.R.G ArtFactory’의 ‘우리동네 주인공은 나야나’도 페스티벌 프로젝트다. 합창, 댄스, 연극, 무용, 융합퍼포먼스가 버

려진 공연을 선보인다. 뮤지컬댄스, K-POP 그룹, 합창, 어린이 마술사, 유아발레, 전문가들의 공연인 ‘알라딘과 요술램프’ 등으로 구성된 무대다.

산골아이들이 발두드림(땀댄스)으로 공연을 만드는 ‘뽕넝상화’의 ‘발두드림 놀이터:두두와 겁쟁이 사자’도 눈길을 끄는 프로젝트다. 공연에 참가하는 속리산 수정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7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 학교다. 작은 학교의 특색을 살려 지역예술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팀이기도 하다. 극단 내 전문 댄서들이 지도교사를 맡고 있다.

‘깔깔깔 놀이터’의 ‘우리들 프로젝트’는 3개의 연속된 단막극 형식의 공연을 선보인다. 어린이들의 관심사, 고민, 꿈을 주제로 각본을 구성한다. 어린이 배우들이 실제 이야기를 극으로 풀어내 연기로 표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